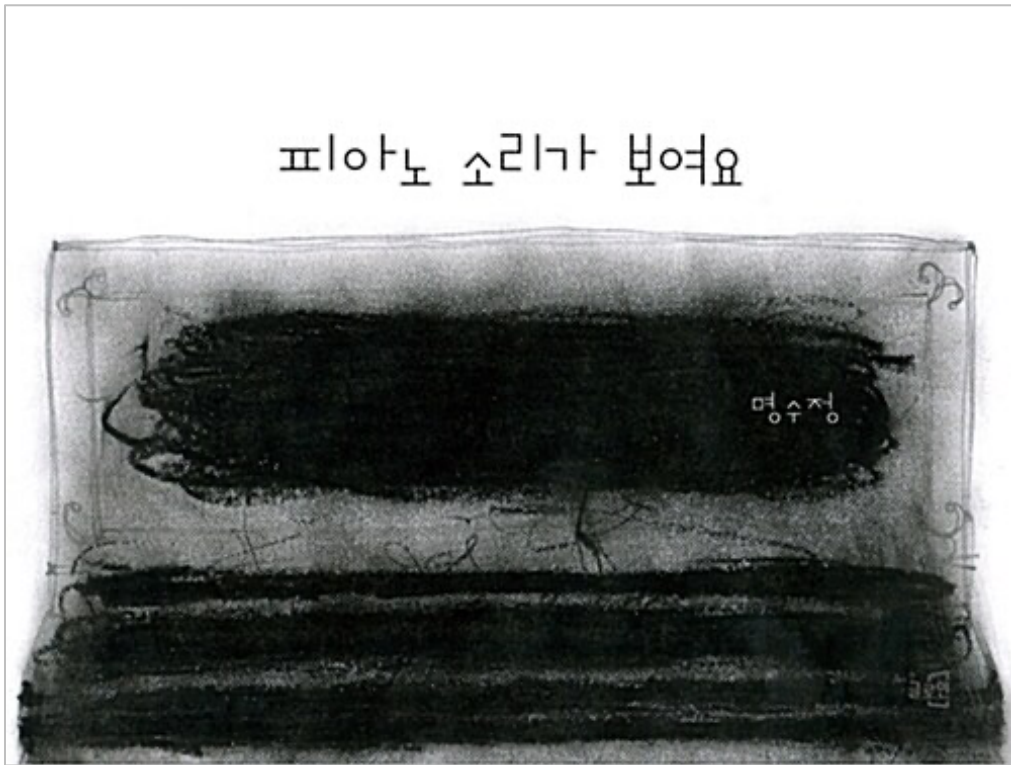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명수정 지음



주제	소리를 시각화해서 표현해보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공감, 감상, 감각, 표현, 장애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1]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음악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4음02-01] 3~4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미술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작성	경기 파주 대성동초등학교 박지숙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라는 존재는 어떻게 여겨질까? 그리고 그들에게 피아노 음악은 어떻게 상상될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 그들에게 피아노 음악을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기획된 책입니다. 본문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와 1번에서 4번까지 총 다섯 곡의 피아노 연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 없이 이미지에만 집중하여 음악이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피아노가 더는 어둠 속의 나무상자가 아니라 멋진 음악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상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 해당 곡의 연주가 녹음된 전체 수록곡 QR코드가 책의 시작 부분과 뒤표지에, 각 곡이 담긴 QR코드가 각 곡의 시작 쪽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그 음률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그림책을 보는 것은 독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된 음의 이미지를 손으로 만져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공되어 시각장애를 가진 독자들은 그들의 예민한 손끝으로 그 음률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에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관찰하며 읽을 수 있다.
- 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음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소리를 듣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 책은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어떻게 인지할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 좋은 책이다. 우리는 피아노를 보면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연상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어떨까? 이 책을 통해서 음악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느껴보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 학생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그 음률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그림책을 보기 위해서는 곡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먼저 필요할 듯하다. 그리고, 나만의 해석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곡을 이해할 방법을 고민해보고 표현해보도록 하고자 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수업 준비물

스피커, 그림표현 도구(물감, 색연필, 사인펜, 클레이 등), 탭 또는 스마트폰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생각해 보기 -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 영상보고 생각나누기	1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이야기 살펴보기 - 떠오르는 경험 나누기 -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1차시
	음악의 생활화 - 바흐의 골드베르크 연주곡 조사하기 - 생활 속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 이야기하기	1차시
읽은 후	내가 만약 작가라면 - 음악을 듣고 추상 표현하기 - 나만의 표현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2차시
	보이는 음악 영상 만들기 - 크롬 뮤직 랩으로 책 속 음악 표현해보기 - 나만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기	2차시
	음악을 듣고 몸으로 표현하기 -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맞추기	1차시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 청각장애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리하기	1차시

읽기 전

1. 생각해보기

■ 활동 전 생각 나누기

- 고요 속의 외침 영상 살펴보기



Tip. 학생들과 직접 놀이로 해도 좋을 듯합니다. 교실에서 헤드셋 등의 준비가 안 될 때는 동작으로 맞추기로 해도 좋을 듯합니다.



-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통은 어떨까요?
예: 비장애인들과 이야기할 때 말을 듣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힘들 것 같아요.
- 청각장애인은 음악을 어떻게 감상할까요?
예: 음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작은 소리는 듣는 사람도 있어요.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 뮤직 시트 관련 영상 보기



- 영상 속 학생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예: 청각장애가 있어요.
- 청각장애인들은 무엇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나요?
예: 진동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 뮤직시트에 앉으면 청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떨림으로 음악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뮤직시트에 실제로 앉아보고 싶어할 것 같아요.

Tip. 교사는 YTN 사이언스 영상(19분)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3학년 2학기 과학 교과 '소리의 성질' 단원에서 '소리는 진동(떨림)'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 수업과 연결해도 좋을 듯합니다.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입니다.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기

- 서지정보: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명수정 지음, 글로연, 2016

■ 표지 살펴보기

- 앞뒤 표지를 살펴볼까요?

예: 표지에 제목이 쓰여 있고 까만 그림이 있어요.

까만 그림에 작가 이름이 쓰여 있는데 꼭 까만 안개 같아요.

뒤표지를 보니 피아노가 그려져 있고 분홍색 새가 건반 위에 앉아있어요. 아! 앞에 까만 것이 '피아노' 인 것 같아요.

- 앞표지는 시꺼맣게 칠해져 있어서 피아노가 잘 보이지 않는데, 뒤표지는 피아노가 선명하게 잘 보여요. 표지 그림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이 책을 보고 나면 피아노 소리에 대해 느낄 수 있어서일 것 같아요.

- 앞표지에서는 왜 피아노를 새까맣게 칠해 놓았을까요?

예: 청각장애인들은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서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답답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 파라텍스트 살펴보기

- 표지를 위로 들추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피아노 뚜껑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면지 살펴보기

- 앞표지와 앞면지를 비교해 봅시다.

예: 앞표지는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서 피아노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앞면지는 여전히 절반은 어둡게 칠해져 있지만, 아래쪽에 건반이 잘 보여요.

-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내가 표지를 펼쳐서 피아노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건반이 드러난 것 같아요.

- 눈을 감고 피아노 건반을 촉감으로 느껴봅시다.

예: 피아노 건반 몇 개가 매끈매끈해요.

■ 그림 살펴보기

- 동그라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 음, 피아노 소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 동그라미 색깔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예: 주로 푸른색, 하늘색, 보라색, 하늘색이었다가 다양한 색이 나와요.

- 동그라미 색깔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음악이 달라져서요.

달라지는 음악에 따른 느낌을 색으로 표현했어요.

- 피아노 그림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 피아노 그림이 점차 커졌어요.

- 피아노 그림이 점차 크게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피아노 소리에 대한 나의 느낌이 크게 다가와서요.

피아노 소리가 내 안에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찾아서 이야기해볼까요?

예: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곡이 연주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장면마다 동그라미들의 색과 위치가 바뀔 때마다 기분이 같이 바뀌면서 좋아져서 전 모든 장면이 다 좋았어요. 그림이 참 예뻐요.

피아노 건반 위에 새가 앉은 장면이 좋았어요.

동그라미에 갇혀 있던 새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워 보였어요.

마지막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다양한 음들이 다양한 색깔의 원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아름다웠어요.

3. 음악의 생활화

■ 변주곡 알아보기

-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조사해 봅시다.

- 이 곡은 카이저 링크 백작의 자장가용으로 작곡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자장가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저는 자장가처럼 편안해서 자장가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들으며 상쾌한 기분을 느껴서 자장가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책을 읽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좀 더 찾아 들어봅시다.

■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음악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나요?

예: 생일 축하를 할 때 노래를 불러요.

차를 오래 타야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기분이 좋을 때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공부할 때나 책을 읽을 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잘 돼요.

읽은 후

1. 내가 만약 작가라면

■ 음악을 듣고 추상 표현하기

- 음악을 듣고 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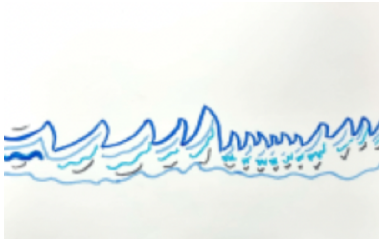
예: 점, 선, 면, 색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음악을 듣는데 다양한 도형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아리아 음악을 듣는데 파도가 느껴졌어요.



검은 도화지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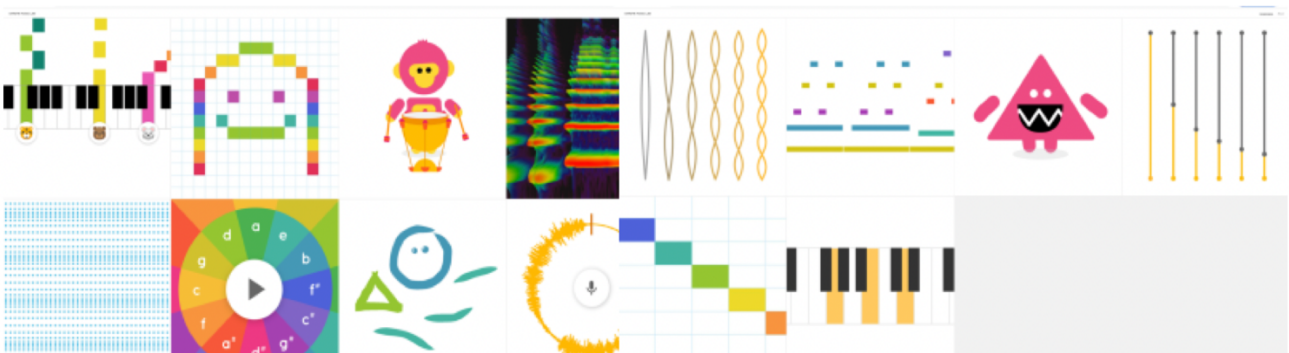
변주곡 2번을 듣는데 애벌레가 알에서 깨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이 떠올라서 오일파스텔로 그려봤어요.



2. 보이는 음악 영상 만들기

■ 크롬뮤직랩으로 보이는 음악을 표현해보기(영상으로 표현하기)

Tip. 인터넷에 '크롬뮤직랩'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양하게 소리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친구들은 시각적+음악적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 나의 음악을 또는 책 속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선택해서 만들어보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나라면 나만의 음악을 크롬뮤직랩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발표해보시다.

예: Shared Piano(셰어드 피아노) 프로그램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었어요.



칸딘스키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려서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Song Maker(송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오징어 게임' 테마를 만들었어요.



송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음악을 만들었어요.



3. 음악을 듣고 몸으로 표현하기

■ 친구가 어떤 음악을 몸으로 표현한 것인지 알아맞혀봅시다.

- 글로벌 사이트 및 그림책 QR코드에 있는 음악 중 하나를 골라서 표현해보기



- 뱀부즐 게임 활용하여 음악을 하나씩 들은 뒤 음악에 어울리는 표현하기.

친구들의 표현을 보고 음악 맞춰보기



Tip. 뱀부즐 게임 플레이 하지 않고 음악만 공유하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몇 개 고르고 그 음악을 준비해가서 나온 음악에 맞춰 몸으로 표현한 것을 맞추게 해도 좋습니다.

4.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 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발명할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치면 손에 진동이 오면서 그 노래의 자막이 깔립니다. 홀로그램으로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뮤직시트처럼 펠름으로 노래를 느낄 수 있고, 자막을 넣어서 진동과 함께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